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7.31

담당부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이승우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727 3441-0641
------	---------	-------	-----------------------------------	------	-------------------------------------

제 목: 2014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7월 CBSI 3.2p 상승한 77.7 기록

- 4년 7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새 경제팀 경기부양책 발표 영향 상승 -

- 2014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2p 상승한 77.7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4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9.3p 상승)하다 전월인 6월에는 통계적 반락 효과로 소폭(2.7p) 하락했는데, 7월 들어 다시 상승함.
- 7월 CBSI 77.7은 4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의 77.2도 소폭 넘어서는 수치로서, 2009년 12월 82.5을 기록한 이후 4년 7개월만에 최고치임.
- 통상 7월에는 흑서기가 시작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CBSI가 전월비 상승함.
- 특히 대형업체가 CBSI 상승을 주도했고, 대형업체의 주택물량 지수가 전월비 30.8p나 상승한 것을 볼 때, 새 경제팀의 주택 금융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발표가 건설기업의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단,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한편, 2014년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1.6p 하락한 76.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8월에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7월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8월에는 흑서기로 인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7월 CBSI가 4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인한 통계적 반락 효과도 영향을 미쳐 CBSI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7월 CBSI 상승을 주도했으며, 중견업체 지수도 소폭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3p** 상승한 **100.0**을 기록하여 소폭 하락(0.6p)한 6월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특히 201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회복하여 체감경기의 개선이 대형업체에서 두드러짐.
 -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대형업체**의 체감경기에 **우선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2.5p** 상승한 **75.8**을 기록해 3개월만에 반등하며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의 75.9를 거의 회복하였음.
 - 반면, **중소업체 지수**는 전월비 **1.3p** 하락한 **53.8**을 기록해 2개월 연속 하락하였음. 공공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 상, 최근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 발표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 자금조달 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8, 99.1**을 기록해 전월과 큰 변동 없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CBSI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인력 및 자재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1, 77.6**을 기록해 전월비 각각 2.7p, 2.8p 하락하였음. 두 지수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재비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6.4, 71.9**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 대비 5.8p 하락하며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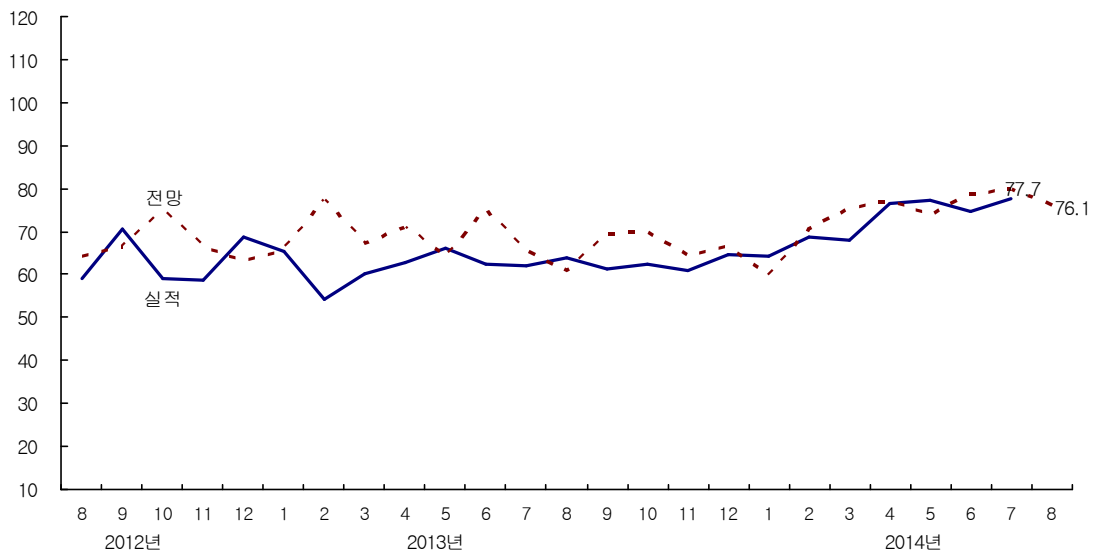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7월 CBSI 3.2p 상승한 77.7 기록
4년 7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2014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2p 상승한 77.7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4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9.3p 상승)하다 전월인 6월에는 통계적 반락 효과로 소폭(2.7p) 하락했는데, 7월 들어 다시 상승함.
 - 7월 CBSI 77.7은 4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의 77.2도 소폭 넘어서는 수치로서, 2009년 12월 82.5을 기록한 이후 4년 7개월만에 최고치임.
 - 통상 7월에는 혹서기가 시작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CBSI가 전월비 상승함.
 - 특히 대형업체가 CBSI 상승을 주도했고, 대형업체의 주택물량 지수가 전월비 30.8p나 상승한 것을 볼 때, 새 경제팀의 주택 금융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발표가 건설기업의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단,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7월 CBSI 상승을 주도했으며, 중견업체 지수도 소폭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3p 상승한 100.0을 기록하여 소폭 하락(0.6p)한 6월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특히 201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회복하여 체감경기의 개선이 대형업체에서 두드러짐.
 -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대형업체의 체감경기에 우선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2.5p 상승한 75.8을 기록해 3개월만에 반등하며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의 75.9를 거의 회복하였음.
 -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3p 하락한 53.8을 기록해 2개월 연속 하락하였음. 공공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 상, 최근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 발표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3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1.2	62.3	60.9	64.5	64.3	68.9	67.9	76.5	77.2	74.5	77.7	79.7	76.1	
규모별	대형	85.7	84.6	85.7	92.9	78.6	84.6	84.6	92.3	92.9	92.3	100.0	100.0	100.0
	중견	50.0	51.9	60.7	50.0	67.9	66.7	60.7	75.9	74.1	73.3	75.8	73.3	72.7
	중소	45.3	48.1	32.0	47.9	43.4	52.9	56.6	58.8	62.5	55.1	53.8	63.3	52.0
지역별	서울	73.1	71.2	74.2	73.2	71.6	73.8	70.4	87.5	85.1	83.7	90.2	88.2	87.5
	지방	39.3	49.0	41.1	51.6	52.8	61.7	64.3	66.0	65.7	60.8	58.8	67.0	58.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2014년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1.6p 하락한 76.1을 기

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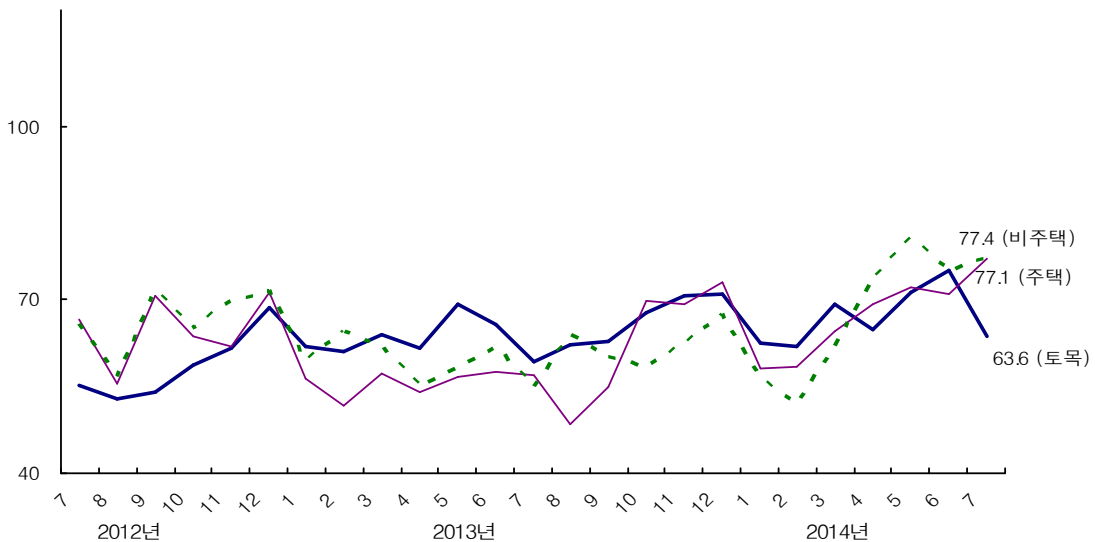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8월에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7월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8월에는 혹서기로 인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7월 CBSI가 4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인한 통계적 반락 효과도 영향을 미쳐 CBSI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7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6.5p 상승한 90.2로 지수가 개선된 반면, 지방 업체는 2.0p 하락한 58.8를 기록해 지수가 소폭 악화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2.4p, 1.4p,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하였음. 그러나, 7월에는 6.5p 상승해 지난 2011년 9월 91.6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0p 하락한 58.8을 기록해 지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6개월만에 지수가 다시 50선으로 떨어짐.

**2014년 7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4.5p 감소한 77.1 기록**

- 2014년 7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5p 감소한 77.1을 기록,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함.
 - － 공사 물량 지수는 3월과 4월 각각 전월 대비 8.2p씩 지수가 상승하여 4개월 만에 70선인 74.8을 기록하였으며, 5월과 6월에도 각각 4.9p, 1.9p 증가하여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80선인 81.6을 기록하였음.
 - － 그러나, 7월 여름철 혹서기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4.5p 감소한 77.1을 기록함.
 - － 다만, 7월 지수로는 지난 2009년 92.6 이후 5년 내 가장 높은 77.1을 기록해 공사물량 상황이 최근 4~5년 상황에 비해서는 침체 수준이 다소 완화 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은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감소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5월에 전월보다 6.5p 상승한 71.2로 70선을 회복하였으며, 6월에도 전월 대비 3.9p 증가한 75.1을 기록해, 2년 8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7월에 전월보다 11.5p나 하락한 63.6을 기록해 3개월만에 다시 60선으로 하락함.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1월 58.0 이후 지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해 5월에 72.1을 기록하였음. 6월에는 전월보다 1.1p 소폭 감소한 71.0으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7월에 6.1p 상승해 4년 8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77.1을 기록, 회복세를 이어감.
 -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5월 7년 내 최대치인 80.7을 기록한 이후 6월에 5.8p 하락한 74.9로 회복세가 주춤하였음. 그러나, 7월에 전월 대비 2.5p 상승한 77.4를 기록해 한달만에 지수가 재 상승함.
- 업체 규모별로 모든 업체가 전월 대비 하락하였음.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6월보다 7.7p 하락한 92.3을 기록함.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전월 보다 30.8p, 16.0p 상승해 모두 100을 넘어섰으나, 토목이 전월보다 15.4p 하락한 69.2로 매우 부진하였음.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5p 하락한 81.8을 기록함. 비주택이 전월보다 5.7p 상승한 78.1로 지수가 개선됨. 반면, 토목과 주택이 각각 7.0p, 1.5p 하락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7.1	92.3	81.8	53.8	90.9	56.2
	전망	76.7	100.0	72.7	54.0	90.2	56.3
토목	실적	63.6	69.2	69.7	50.0	68.7	55.8
	전망	65.2	84.6	57.6	51.0	70.8	56.6
주택	실적	77.1	107.7	81.8	36.0	98.2	45.1
	전망	78.5	115.4	72.7	42.0	97.5	49.7
비주택	실적	77.4	108.3	78.1	40.4	97.8	45.6
	전망	70.0	100.0	62.5	43.5	86.0	45.0

주 : 실적은 2014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8월 예측지수임.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2p 하락한 53.8을 기록함. 모든 공종이

전월대비 하락하였는데, 주택이 36.0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으며 다음으로 비주택이 40.4, 토목이 50.0을 각각 기록하였음.

- 지역별로 서울은 전월보다 0.3p 하락한 90.9를 기록해 지수 하락폭이 크지 않았음. 반면, 지방은 11.0p 하락한 56.2로 침체가 심각했음.
 -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3p 하락한 90.9를 기록해 지난 6월 91.2 이후 2개월 연속 90선을 기록함.
 -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1.0p 하락한 56.2를 기록해, 지수가 6개월만에 다시 50선으로 떨어짐.

- 2014년 8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월보다 0.4p하락한 76.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 통상 7월보다 8월에 흑서기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물량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지수 감소폭이 0.4p 밖에 되지 않아 8월의 물량 감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공종별로 살펴보면, 주택이 가장 높은 78.5를 다음으로 비주택이 70.0, 토목이 65.2로 각각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가장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 자금조달 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함. 인건비 및 자재비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 수준 완화로 인한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자금조달 상황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8, 99.1을 기록해 전월과 큰 변동 없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체감경기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인력 및 자재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1, 77.6을 기록해 전월 대비 각각 2.7p, 2.8p 하락하였음. 두 지수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재비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양호한 수준임.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6.4, 71.9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 대비 5.8p 하락하며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86.4	107.7	87.9	59.6	96.4	71.1
		전망	87.1	115.4	78.8	63.3	99.4	68.1
	자금조달	실적	71.9	84.6	69.7	59.6	73.3	69.9
		전망	77.1	100.0	66.7	62.0	81.5	70.3
인력	수급	실적	96.8	107.7	103.0	76.9	107.0	81.3
		전망	99.2	115.4	103.0	76.0	111.5	80.5
	인건비	실적	86.1	100.0	96.9	57.7	96.3	70.8
		전망	87.4	100.0	93.9	65.3	95.6	74.9
자재	수급	실적	99.1	107.7	103.0	84.6	107.2	86.8
		전망	92.9	100.0	97.0	80.0	99.2	83.2
	비용	실적	77.6	84.6	87.9	57.7	85.6	65.5
		전망	75.2	84.6	84.8	53.1	83.6	62.6

주 : 실적은 2014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8월 예측지수임.